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유*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W49번 Street에 위치한 랑가라는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차를 타고 얼마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홈스테이 집에서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캐나다의 교통시설이 잘 되있는 편이어서 학교를 찾아가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보다 작은 느낌이었고 수업을 이곳저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을 찾아가기 어렵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였습니다. 시설은 어느 곳이 뼈어나게 잘 되어 있었다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곳곳에 있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번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대학교의 모습 그대로이며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있다면 근처에 보여 편리했습니다.</p>
수업	<p>분반은 처음 학교를 가는 날 간단하게 듣기시험과 문법 시험을 본 뒤에 나뉘어 졌습니다. 총5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2반에 배정되었고 한국인 3명 일본인 15명과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방법은 처음 학교에서 간단한 오티를 할 때 나누어 주신 파일을 이용하여 간단한 영어 말하기 표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반은 조별끼리 하는 활동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끼리 서로 영어로 대화하면서 말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영어를 이용하여 말을 해야지만 의사전달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밴쿠버 투어를 하거나 휘슬러라는 지역에 가거나 아쿠아리움을 가거나 하는 등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다들 밴쿠버에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우미 선생님께서 붙으셔서 혹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미리 준비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p>

Activity	<p>벤쿠버 투어를 하는 날은 말 그대로 벤쿠버에 있는 곳곳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또 그에 관해 조사하는 종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걷는 양이 많아 편한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쿠아리움과 박물관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깐 따로 준비를 하거나 복장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은 없었고 휘슬러를 갔을 때 휘슬러가 여름인데도 산에 올라가서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드티를 하나 챙겨가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또 정상에 도착하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돌맹이들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날씨는 우리나라의 봄, 가을과 같았습니다. 아침은 서늘한데 오후시간에는 햇빛이 강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면 심하게 탈 수 있으니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항상 일정하게 햇빛이 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햇빛이 강했는데 다음날은 갑자기 서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하면서 항상 날씨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가디건을 잘 입고 다녔으며 휘슬러를 다녀왔을 때 긴바지가 없어 반바지를 입고 간 바람에 감기가 걸려 마지막 입국을 앞두고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비상 약도 꼭 챙겨가는걸 적극 추천합니다.</p>
안전	<p>캐나다의 너무나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일요일은 10시까지 토, 일요일은 11시까지 통금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통금시간보다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홈스테이 부모님들에게 연락만 미리미리 잘하고 말씀드리면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p>
숙소	<p>저는 솔직히 홈스테이 집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따로 정해진 규칙이 있거나 유의사항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두분 다 너무 바빠셔서 그러지 못한 것과 주방이 많이 더러워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쥐를 보고 했던 것이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해주시는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지냈던 방과 침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지침서와 다르게 집에서 수건을 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분의 수건을 미리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캐나다에 가면 정말 많은 스시집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맛도 다 다른데 그중 Downtown에 가게되면 한국분들이 하는 momo스시집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였고 아니면 Subway 샌드위치를 사먹는다면 그 외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홈스테이에서 싸주시는 음식이 좀 지겹다 싶으면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빵을 사서 먹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면서 양도 많아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교통	저희 집에서 통학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두 번타고 가거나 버스를 한번탄뒤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통을 이용하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잘 되어있어서 학교 앞까지 가는 49번 버스가 자주다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배차간격 시간이 굉장히 좁은 편이어서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학교가는 시간이 40분정도 걸렸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정도 걸리거나 아님 더 걸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200000	
쇼핑	800000	
면세	250000	100000만원은 출국 전 사용
기념품	250000	
합계	1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와야지라는 마음도 좋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지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따로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은 앞에 날씨 이런 공간에 써 놔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캐나다에서 뭘 구매하든 먹든 모든 것에 TAX를 붙여서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생각을 해본다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TAX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지만 캐나다가 교통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 어디 갈 때 굉장히 편하게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이 끝나면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무리해서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캐나다의 밤 야경, 사람들이 지내는 생활모습 등을 여유 있게 구경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 진짜 짧게라도 말을 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알아듣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3주 동안 지내면서 영어실력을 엄청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배정받은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먼저 나를 챙겨줘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마디 더하려고 하고 더 살갑게 하려고 하면 정말 좋은 재미있는 홈스테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서 그러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학교에서 휘슬러 갔을 때 찍은 풍경



DownTown에 있는 MOMO스시 음식사진



벤쿠버 City Center의 풍경



벤쿠버 Tour할 때 조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



카약타러 갔을 때의 풍경



SteamClock야경 (이 주위가 밤 야경이 예쁩니다)